"하나님으로 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 보라."
윌리엄 케리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헬뭇 하우바일
HELMUT HAUBEIL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ORDER INFORMATION for OTHER LANGUAGES
외국어 번역본 주문 안내

USA
Remnant Publications
649 E. Chicago Rd
Coldwater, MI 49036
Phone: 800-423-1319
Phone: 517-279-1304
Web address for orders:
www.remnantpublications.com
Available at your local Adventist Book Centers

Canada
Lucas Jurek
118 G First Avenue North
Williams Lake, BC
V2G 1Y8
E-mail: lucasjurek@gmail.com
Mobile number: 250-983-2650

Australia
Colin Hone
Booklet in English
E-mail: colin.hone@murrayhone.com.au

Philippines
Allan D. Faina
Email: berevived7.14@gmail.com
SDA Church
Fidela Herrera Subd
Bgy. Santol, Tanza, Cavite-4108
Phone: (63) 926-054-1175

Russia
Source of Life Publishing House
Vostochanya St. 9, Zaoksky 301000
Tula Region, Russia
Tel +78 73 42 01 01
www.lifesource.ru

Europe - Russian-language literature
Christa Medien GmbH
Pulverweg 6
D-21337 Lüneburg (Germany)
Tel. +49 (0) 4131-9835-580
www,christa-medien.eu
www.christa-shop.eu
E-mail: info@christa-medien.eu

Germany and abroad
Wertvoll leben
Im Kiesel 3, D-73635 Rudersberg
www.wertvollleben.com
E-mail: info@wertvollleben.com
Phone: +49 (0)7183-3071332
Phone: +49 (0)7183-3099847

Austria
TOP Life Wegweiser-Verlag
Prager Str. 287, A-1210 Wien/Vienna
www.toplife-center.com
E-mail: info@wegweiser-verlag.at
Phone: +43 (0)13199301-0

Austria and Germany
Adventist Book Center
Bogenhofen, A-4963 St. Peter/Hart
www.adventistbookcenter.at
E-mail: info@adventistbookcenter.at
Phone: +43 (0)2294000

Switzerland
Advent-Verlag
Leissigenstr. 17, CH-3704 Krattigen
www.av-buchshop.ch
E-mail: info@adventverlag.ch
Phone: +41 33 654 1065

SPEAKERS FOR SEMINARS

USA and many countries: www.spiritbaptism.org - start page scroll dow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European countries:
www.steps-personal-revival.info—click German version - Kontakt page—scroll down

Philippines: Allan D. Faina, E-mail: allan@lightingtheworld.org, SDA Church:
Fidela Herrera Subd, Bgy.Santo, Tanza, Cavie-4108, Phone: (63) 926-054-1175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헬뭇 하우바일
HELMUT HAUBEIL

목 차

7

권 두 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9

서 문: 지도자들을 위한 제안

곱으로 증가하는 성과

14

제 1 장

예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권능 있는 기별을 들어 보셨나요?

23

제 2 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이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45

제 3 장

우리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까요?

목 차

60

제 4 장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가 무엇일까요?

79

제 5 장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92

제 6 장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인적 경험 및 교회, 합회, 연합회에서의 경험들

101

후 기

102

관련 주제 참고 문헌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1]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2]

---

1 이지 화잇, *산상보훈* 21쪽

2 Johannes Mager,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Lüneburg, 1999), Seite 101

권 두 언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삶"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1년 8월 14일, 저자는 스위스 베르너 오버랜드 지역의 칸더그룬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우리의 청년 자녀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문제가 한 영적 원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또렷한 깨달음이 번득 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때 저는 저의 자녀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주제는 제 마음을 송두리째 점령해 버렸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동일한 영적 원인이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 - 특별히 지역 교회와 세계 교단에서 신자들 개인이 당면한 문제들 - 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영적 원인은 바로 **"성령(聖靈)의 결핍(缺乏)"**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둘러서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제거될 수 있다면 문제도 제거될 것이고, 원인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면 문제도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결핍에 관한 신학자들의 견해

- **에밀 브루너** (Emil Brunner, 개혁 복음주의 신학자): 성령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 간에 의붓자식 대접을 받고있다.[1]
- **마르틴 로이드-죤스** (D. Martin Lloyd-Jones): 성경 교리 중에서 현재와 과거를 막론하고 성령에 관한 주제 만큼 도외시된 주제는 없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견해다. ...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나는 생각한다.[2]
- **리로이 프룸** (Leroy E. Froom): 내가 단언하지만, 성령의 결핍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3]
- **드와잇 넬슨** (Dwight Nelson):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성령의 결핍)를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4]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위하여, 말씀 속에 제시된 약속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

1 Johannes Mager,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Lüneburg, 1999), Cover
2 D. Martin Lloyd-Jones, *Vollmacht, Telos-Taschenbuch* Nr. 385, Marburg 1984, p. 72
3 Leroy E Froom, *The Coming of the Comforter* (Hagerstown, 1949), p. 94
4 Editor Helmut Haubeil, *Missionbrief Nr. 34 (Bad Aibling, 2011)*, Seite 3

서 문

지도자들을 위한 제안

갑절로 증가하는 성과

지도자 여러분,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숫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과제를 다룰 것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토대로 배울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빠짐 없이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에 실린 여러 경험담은 독자들에게 소중한 도우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받은 감동을 나누거나 책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숫적 성장을 경험하려면 그 이상의 큰 노력이 요구될겁니다. 이 책에는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가지 사례와 성공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참여 정신이 필요됩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당신이 인도하고 있는 교회나 기도 그룹의 헌신도가 당신의 헌신을 능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전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간증과 대화,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끼치는 영향과 우리의 설교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공의 비결은 이 책을 여러 번 통독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저술물은 6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여 읽어야 그 내용이 확실히 파악된다고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연합회의 부장을 지내신 은퇴 목사님의 간증

간증 #1: 저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세번 읽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그렇게 폭 넓은 이해를 습득하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자의 설명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야영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책에서 설교 제목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 FS (약명)

간증 #2: ... 이 책을 읽으면서 (추천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6회 읽었음)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이 후로 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야영회의 설교 주제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관한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유쾌하게 하는 성령의 소낙비" 였습니다. 제가 목회에 바친 여러해를 회고해 볼 때, 이번 야영회에서 강당에 운집한 삼천 여명의 회중 사이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은 예전에 결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은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 FS (약명)

40일 헌신기도 모형 - 17명에서 65명으로 성장

독일의 쾰른-칼크에 독일계, 스페인계, 포르투갈계를 포함한 17명 멤버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롯쩨 담임목사님은 40일 기도 모임을 계획하고 교인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교인들은 2인 그룹으로 나뉘어 40일 헌신기도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은 각기 5명의 구도자를 택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연락을 취했습니다. 40일이 마치는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손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다음 단계로 14일 동안의 전도회가 따랐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13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몇차례 반복된 40일 기도 모임의 결과로 4년 만에 교인 수가 6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0일 기도에 관해서는 40일 헌신기도 책을 참조하십시오. 쾰른의 경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증 19번"에 있습니다.)*

루가노 - 스위스 남부에 위치한 이탈리아권의 세속적 도시

마티아스 마아크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저서 40일 헌신기도책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스위스로 돌아오자 마자 즉시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해에 15명의 침례를 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교려할 때 대단한 성과입니다.) 지난 15년 간 정규적으로 출석하던 한 여성 구도자는 이 40일 기도회 기간 중 침례를 결심했습니다.

청년 - 제 이름은 알리나 밴 렌스버그입니다. 저는 남퀸스랜드합회(교인수: 12,200명)에서 청년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초 한 여청년이 제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소개해 줬는데, 이 책이 저를 완전히 압도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

* 역자주(註): 간증들이 실려있는 웹페이지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testimonies/

저와 제 남편의 마음 속에 심어주신 하나의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목하라” 인데 이 책도 역시 같은 테마를 다루고 있더군요. 할 얘기가 아주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 부부는 이 책으로 인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레그 프랫 (제자도/영성개발부, SQC)부장께서 이 책 300권을 제게 주셔서, 올해 초 수양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 지도자들에게 한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을 읽은 청년 지도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권을 더 구하여 올해에 있을 대야영회 중 라이프 그룹 모임에 참석할 청년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침례자 366명 + 침례반 35명

부룬디 연합회(교인 수: 13만명,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배포: 10만권)의 폴 이라코즈 목사에 의하면, 교회를 떠났던 이전 교회 멤버 320명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의 영향으로 2017년 3월 침례 받고 재입교하였다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 신도들이 이 책을 3회 통독하고 나서 다른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도하여 2017년 3월 침례자 25명을 냈습니다.

죄수 전도 – 므핌바 교도소에 복역 중인 교인들에게 이 책을 배포한 결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수감 교인들의 전도 노력으로 지난 안식일 21명의 죄수들이 침례를 받았고 다른 35명도 침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이끌어 낸 열매입니다.

기도 주일 성경 연구

2017년 11월, 부룬디연합회는 13만 전 교인들을 위한 일주일에 걸친 기도회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다시 사용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책을 주제로 한 이라코즈목사의 설교는 매일 저녁 재림교회 라디오(Adventist World Radio)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대학생들 – 앤드류스대학교 파이어니어교회의 담임목사인 드와잇 넬슨목사님은, “이 작은 책이 나의 속사람에 변화를 일으켰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9월 2일에 시작된 세차례에 걸친 시리즈 설교의 총 제목은: “그라운드 제로, 신종교개혁: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였습니다. 넬슨목사님은 설교 중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모든 청중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설교 후 천여권의 책이 주문되었고, 피디에프(PDF) 파일의 전자책 사천여권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넬슨목사의 시리즈 설교와 블로그의 링크: http://www.pmchurch.tv/sermons

기발한 아이디어 (미국) – 어제 드와잇 넬슨목사님의 시리즈 설교 비데오를 시청했습니다. 오는 안식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교회에 소개할 때 넬슨목사님의 설교 비데오를 처음 5분 동안 회중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책에 관련된 넬슨목사님의 간증이 교인들 사이에 책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파트락 점심 후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 관심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 전체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DW (약명)

전도회 – 드와잇 넬슨목사님의 2017년 10월 11일 블로그 중에서:

자그렙 재림교회(크로에이샤)에서 저녁 마다 열리는 90분 동안의 전도회에 91명의 손님(그 교회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이 참석했습니다. … 이 회집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이 드린 중보기도에 개인적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공중 전도회에 관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그렙의 전도회는 전혀 달랐다고 증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중 전도회는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곳 파이어니어교회의 목사님들께는 이미 보고했지만, 성령께서 자그렙시의 전도회에 조석으로 전면 개입하신 결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한마음으로 드려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저는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지난 9월부터 여러 교우들께서 매일 반복하여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자그렙시에서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아침마다 신선한 성령의 침례를 위해 탄원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화해: 개인별, 가족별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간증 2/17; 3/35; 3/40; 4/52; 5/56)* 온 교회가 대립, 다툼, 분쟁, 상해, 적대, 감정 폭발, 개인 공격등으로부터 관용, 평화, 용서, 화해로 돌아섰습니다. (간증 1/10; 7/84) *

어느 젊은 어머니와 자녀들 (미국) - 남자 아이 셋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매일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로 저의 아이들의 행동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쉽게 참을성을 잃을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게 되었고, 저를 쉽게 짜증나게 만드는 일도 이제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전 보다 쉽게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D.W.)

---

* 역자주(註): 간증들이 실려있는 웹페이지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testimonies/

저자의 요청: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노령의 형제로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친지와 기도하며 함께 이 책을 여러번 읽으세요. 당신이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나 합회에서 눈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단계: 당신이 가진 견해와 경험들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포함한 교회의 핵심멤버들에게 소개하면 어떨까요? 이들이 기별을 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그런 방법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암하라에서 열렸던 부흥회 마지막 날에 500명의 목사님들에게 이 책이 기증되었습니다. 2017년 6월 북필리핀 연합회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1,500명의 장로들에게 이 책이 기증되었습니다.

경험들: 당신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출판물에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간증에는 위대한 감화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당신의 간증들을 다음의 웹페이지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Testimonies/ 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다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산상보훈 21쪽)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 5:18)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사 40:9)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형제된
헬뭇 하우바일

제 1 장

예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나요 ?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권능 있는 기별을
들어 보셨나요?

개인의 간증들

"처음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 한 여신도가 저자에게 보내온 메세지입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40일 헌신기도"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번갈아 가며 세번째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두 교재를 발견하기까지 저희의 믿음이나 기도의 삶은 아주 해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은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M.S. (약명)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 이 두 책에 관한 또 하나의 전자메일입니다: "... 이 두 책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삶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한 여신도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

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S.K. (약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질문: 예수께서 행사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혹시 그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공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밤중에 도착한 친구의 비유, 그리고 공과의 클라이맥스인 성령을 받기 위한 끈질긴 간구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하고 떡 세덩이를 꾸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한 덕에 결국 떡을 받아냅니다. 자, 이제 그는 자신과 손님을 위한 떡 - 생명의 떡 - 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비유(문제: 가진게 아무것도 없음)를 성령을 위한 간청과 연결시키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눅 11:9)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특별 호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

예수께서 단호한 어조로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사례가 성경에 딱 한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예수께서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촉구하신 다른 예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공과에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 간청할 것을 열번이나 반복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1장 9-13절 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구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 (킹제임스)

예수께서 위의 다섯절 안에 "구하라"는 의미의 동사를 6회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하라"를 강조하시기 위하여 "찾으라"를 2회, "두드리라"를 2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라"와 "두드리라"는 행동 동사입니다.

---

* 역자주(註): 한글 개역성경에는 9회, 영어 킹제임스 번역에는 10회 나와 있음.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을 예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하다"라는 단어가 6회 반복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 중 마지막 단어는 희랍어의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첫째로 긴급성, 곧 지체하지 말 것이요, 둘째로 지속성, 곧 연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긴급 초청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신자들은 절대로 균형진 신앙을 살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 없이 받기 원하십니다.

실물교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하도록 만든다."[1]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예화를 통하여 세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죗된 인간 아비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예화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든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일 5:14, 15 ;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임)

이 특별 초청문에는, 우리가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 필경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 신앙 요소가 핍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세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공과 중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관한 색다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함께 받게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삶을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 15:4, 5) 다음 성경절들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

1 이지 화잇, *실물교훈,* 145쪽

- 하나님을 갈망함 - “목마른 자는 누구나” (요 7:37)
- 하나님을 신뢰함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요 7:38)
-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 -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삶을 전적으로 헌신함” (롬 12:1)
- 매사에 하나님을 따름 -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 (행 5:32)
-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음 - “회개하여 … 침례를 받고” (행 2:38)
-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함 -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함 - “내게 ... 없노라” (눅 11:6)
- 부단히 성령을 간청함 (눅 11:9-13)

위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주 높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 모든 전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자신의 부족을 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성령을 간구하는 매일의 기도에 요한복음 7장 37절을 꼭 포함시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2]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제가 수락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근원되신 성령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쓰여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현세에서 누리는 것, 또 재림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께서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요 7:37-39)

“생수의 강” - 신자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이보다 더 적절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

2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는 아주 귀중한 기도법입니다. 제4장에서 더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지상 생애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기신 모본

우리가 알기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였습니다.(마 1:18) 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었습니다.(눅 3: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화잇여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3]

사도행적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4]

예수님은 이 점에서도 분명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만약 예수께서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하심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하심을 입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서신 1장 13절에서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기 시작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서신 3장 16, 17절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의 권위로 5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우리 모두 포함됨)에게, " …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5]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매일 새롭게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안식일 학교 교재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병행절로 친히 해답을 주셨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면'(행 1:8)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행 1:5)이다. 침례라 함은 물과 같은 어떤 물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인적 경험이다.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번에 끝날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어야 할 경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

---

3 이지 화잇, *시기의 징조,* 1895년 11월 21일

4 이지 화잇, *사도행적,* 56쪽

5 Johannes Mager,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Lüneburg, 1999), Seite 101

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에 '채우다' 라는 뜻의 희랍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6]

예수님의 고별(告別) 설교와 성령

예수님은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새로운 해결책의 장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장벽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때와 장소에 상관 없이 각 개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여교사와 학생의 간증

약 일년 전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헬뭇 하우바일 목사님의 저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짧은 시간 내에 통독해 버렸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저를 매료시켰고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저술물은 6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여 청취하거나 읽어야 주제가 확실히 파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글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번만 실험해 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

6 *장년 안교 교과* 2014년 7월 17일

제게 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번 째 통독을 마치고 나서 이 책이 저를 사로 잡고 말았습니다. 구속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2개월 만에 6회 통독했는데, 그 결과는 사뭇 놀랄만 합니다.

혹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의 순결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런 눈을 바라볼 터인데,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즐거움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눈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의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하십니다.

요즈음 제 근무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 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 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이제 하늘은 제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제 마음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가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의 포라를버그에 있는 엘리야 삼육학교에서 10세로부터 15세 사이의 학생들을 담임한 교사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안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13세의 악동(惡童)과 성령

다음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기 일년 전 저희 학교에 전학한 어떤 남학생 연고로 벌어진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전학 온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늘 평온한 오아시스 같던 학교 분위기가 온통 도떼기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 학생이 13세 였는데 그는 학생들 중 체격도 제일 크고 따라서 기운도 셋습니다. 지난 몇 학기 동안 쌓아온 학업과 좋은 결실이 하루 아침에 허실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스토리 입니다: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관해 조금도 짐작 못했습니다. 등교 둘째 날인데 저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 하나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힘이 약한 그 아이를 제가 두들겨 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다시 그를 보기도 싫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사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지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 교장 선생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는 동안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고려할 때, 어쩌면 이런 변화가 이제서야 일어난 것인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상당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를 “특별 관심 대상 학생”으로 삼기로 했지요. 그는 적어도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문제가 터질 때 마다 자숙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기초를 둔 그의 노력은 오래 지탱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고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사태는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아마 기도의 응답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 마다 영적 능력을 위해 기도 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감정 격발과 다투는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학 온지 11개월이 지나자 사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쉽게 화내는 성미, 욕하는 버릇, 주먹을 휘두르는 버릇 등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지식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에 성과가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잘못되어 있었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다를바 없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다음 순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인간적 노력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무렵, 때마침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제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요.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때 저는 이 책으로 인해 한창 은혜를 받고 있던 중이라 용기를 내어 그에게 ‘혹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 드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흥미를 불러 일으킬 목적으로 그에게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덥썩 책을 안긴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기 전에 책을 줄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곧 책을 달라고 하더군요.

다시 본인의 스토리입니다: “2012년 11월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한권 주셨기에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성령의 사역에 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기 시작한 첫날에 이미 2장까지 읽고 나서, 저보고 도합 몇차례 읽었냐고 묻더군요. 그는 즉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의 추천 대로 6회에서 10회 통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는 주먹다짐이나 말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이 매일 두들겨 패던 남자아이들은 그와 잘 어울려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딴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고 친절해졌습니다. 그의 과격한 성미는 온화한 성미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의 급우들이 인정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매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는 2013년 6월에 침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제 휘하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인내, 배려, 잦은 대화등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 효과를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를 하늘에서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확인하게 되겠지요. 제가 지혜의 한계점에 달했을 때, 또 제게 이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능이 없음을 이해했을 때, 바로 그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떠맡으시고 그에게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적 사례라는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C.P. (약명)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긴급 초청문을 보내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간구하도록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이런저런 손실을 당했으니 죄송합니다. 저의 삶에 예수께서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하여 신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꼴지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은 제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저의 전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가납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해 주세요. 아멘

제 2 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이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결핍의 이유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함 - 로마서 8장 5-7절에 의거) 때문이라."(약 4:2, 3)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구요.(눅 11:9-13) 성령을 구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7]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 부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치있는 일입니다. 화잇여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다."[8]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7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2쪽
8 이지 화잇, *원고,* 7권 267쪽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9]

신앙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마아크 핀리목사님의 말 처럼, "부흥에 관련된 성경적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것"[10]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로 독자들을 초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로에서 넘치는 능력과 풍성한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우리는 문제를 분석 검토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해결책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경험할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결핍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과 업적이 허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획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복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다 밀접했다면 우리의 업적은 더욱 풍요로왔을 것이고 교회의 형편도 보다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아마 장래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헨리 T. 블래커비 목사님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육 년간의 업적 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육 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11]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력 아래 얼마나 신속히 정로로 행하느냐의 여부에 문제 해결의 관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놀라운 수준의 능률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분이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설교가 끝났는데, 기별을 수용한 회중이 한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혹 과반수, 또는 전 회중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나 전 회중이 기별을 수용하고 삶에 적용했다면, 이 때 설교가 능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성과를 주십니다.

---

9 이지 화잇, *교회증언 8권,* 22쪽

10 마아크 핀리,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소서*, 25쪽

11 Henry T. *Blackaby, Den Willen Gottes erkennen und tun* (하나님 경험하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Kassel, 2003) p. 31

세가지 유형(類型)의 사람들: 그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성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그 성장 과정, 성품, 직업, 연령, 문화, 교육 수준등에 따라 각 개인은 다양한 색깔의 유형으로 더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본 자세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무관계 - 성경은 이들을 자연인,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 실질적이고 풍만한 관계 - 성경은 이들을 영적,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 허위적이거나 분열된 관계 - 성경은 이들을 **육신적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 사람, 육신적 사람이란 성경적 용어들은 사람의 가치를 헤아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이 세 유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인에 관하여는 간단히 다룰 것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했고, 다른 두 유형은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 두 유형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은폐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어질 분석 검토 과정은 각자의 영적 현주소를 자기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보다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판단 기준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곧, 각자 성령과 어떤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아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고전 2:14; 킹제임스)*

자연인은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

* 역자 주(註):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연인"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음.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가 공존하는 교회

교회 안에 공존하는 두 유형의 교인들에 관한 주제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로마서 8장 1-17절, 갈라디아서 4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자들이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322쪽, 마 12:32)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12]

영적 신자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개역개정)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킹제임스)

영적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이라 불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적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 친밀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마음의 보좌에 앉아계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의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맡기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사람을 라오디게아의 기별에서는 "뜨겁다"고 하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롭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7절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영적 사람에 대해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람은 "더 풍성한"(요 10:10) 삶을 누립니다. 영적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골 2:9) 하였습니다.

육신적 신자

교인 된 연조가 길다고 해서 그가 꼭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더라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 현주소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거하는 삶에서 당신은 큰 즐거움을 맛

12 이지 화잇, *정로의 계단,* 95쪽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대부분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부지중에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나은 믿음의 경험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대개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으로부터 마음에 경험하게 될 큰 즐거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 당신은 단계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것이고 (요10:10 -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됨) 또 확고 부동한 기초에 자리잡은 영생의 소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늘 아버지, 제가 만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즉시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제 의지를 굴복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를 행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곧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보다 풍성한 삶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 주신 것을 인해 감사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적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표준새번역)

여기서 볼 때, 한 교인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그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기준 삼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사도는 이 네개의 성경구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을 네번 사용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신체적 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여 성령과는 무관히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세 유형의 범주 안에 각양 다른 속성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둡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 사람들을 "형제자매 여러분"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도가 그들을 신자로 여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들을 "신령한 사람(영에 속한 사람)" 대하듯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이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작 "어린아이" 취급 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뛰어난 성경지식을 소유해도 영적으로는 수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삶으로 평가됩니다.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서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함으로 고심합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개인적 분투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육신적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명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지역 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주요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2, 23)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대신 허위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삶을 위탁하지 않거나 간혹 그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외향적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1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독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 다음에 언급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죗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

13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6쪽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14]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은 당장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3장과 5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부심의 압제와 죗된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15]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손된 자부심, 시기심, 성가심, 분함 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하나님)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런 자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놓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16]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요 3:1-21) 그 다음 다룰 주제는 어떻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굴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요 15:1-17) 이 주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

14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357쪽
15 이지 화잇, *정로의 계단,* 43쪽
16 이지 화잇, *정로의 계단,* 43쪽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모리스 벤든 목사의 말입니다.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중의 한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17]

화잇여사가 매일 자신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 받을 것이다.”[18]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 처녀의 비유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잘 설명되어 있음.)

신자들의 육신적 상태를 식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육신적인 신자들의 삶은 “종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 - 하나님과의 밀접한 구원적 관계 - 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계 3:20)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에 의거한 견고한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새 빛을 수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백성이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일 제가 성령과 동거하는 경험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그 경험이 제게 어떤 단서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육신적 문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40일 기도회에 참여하는 어느 여신도와 이제 막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40일 기도에 관한 내용은 제5장에서 볼 수 있음) 그 여신도는 이 기도회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무엇일까 평생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목사님도 그 여신도의 간증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일생 처음으로 자각했답니다. … 주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의식했다고 합니다.”[19]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무언가 결핍된 것을 자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꼭 집어 내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갈망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얻는지도 모릅니다.

---

17 모리스 벤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95개 논제,* 63쪽

18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523쪽

19 헬뭇 하우바일 목사가 받은 2012년 2월 15일자 전자메일

저자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아직도"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씀은 육신적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므로 언젠가 깨닫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의 다른 측면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음을 듣고, "이 교인들은 육신적이다. 신령한 삶을 사는 대신 육신적 삶을 살고있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종교적 특색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그들은 자연인 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긴장 상태가 주로 육신적 신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입니까?(유 19 참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상호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부터 교회 안에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경쟁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유별나게 엄격했고 다른편은 비교적 온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자기편이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하면 양편이 똑같이 육신적이었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보수적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이 관찰하는 사물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대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이치다 보니, 이들은 서로 자기편이 더 옳다고 느낍니다. 성경이 우리를 육신적, 혹은 영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준으로 사람을 헤아리는게 옳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명쾌한 해설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7, 8)

육신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좋아하고 예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뒤로 물러간 사람들입니다.(갈 3:3; 계 2:4, 5) 아마 무의식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살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경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엔 두 영혼이 깃들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을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는 것은 육신적 마음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하신다면 이는 단지 자부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육신적 교인들은 결국 인간적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뜨뜻미지근하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는 "미련하다" 고 묘사되었습니다.

---

* 역자주(註): 괴테의 "파우스트"

왜 예수께서 육신적 교인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십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 3:20) 예수께서 신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대신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깥 문 앞에서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단지 지능적, 인지적 차원에서 영적 삶을 영위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요 3:1-10 참조) 또 어떤 이들은 젊은 부자 법관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비싸고 치러야 되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롬 12:1 참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정과 삶의 전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마 16:24, 25 참조) 또 자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되어야 합니다.(롬 12:1 참조) 예수님을 바깥에 서 계시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주의와 태만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20)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전 박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상태 역시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와 결부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도 똑같이 뜨뜻미지근함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인을 등한히 하면서 직업에 아주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뜨뜻미지근하면서 직책에는 충직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교인, 열심있는 교회 직원, 목사나 합회장이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뜨뜻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함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너무 바빠서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가 신도들의 영적, 육신적 상태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 그들 모두 처녀였습니다.
- 그들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 그들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 그들 모두 성경을 가졌습니다.
- 그들 모두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 그들 모두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들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 그들 모두 외치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 그들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 그들이 준비한 모든 등이 빛을 발했습니다.
- 그들 중 반수가 자기의 등이 꺼져감을 알아챘습니다.

이들 모두 등을 준비했고 **모든 등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고 기름이 소모되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 중 다섯이 자기가 들고 있던 **등불들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도 잠시 빛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어느 정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졌던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다섯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라도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8,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일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한 여신도의 경험입니다. 삶을 통하여 체험하기 시작한 성령의 임재로 이 여신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남부 독일에 거주하는 한 여신도가 다음과 같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데니스 스미스목사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40일의 기도와 헌신'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20]

또 어느 신도가 보내온 글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에게 지대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장(章)과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과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었다는 마음의 괴롬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89쪽에 있는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책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A.P. (약명)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부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 간의 핵심적 차이점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독자중에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으니, 곧 성령입니다.

어떤 기독교 써클에서는 성령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써클에서는 오히려 성령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 정로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

20 헬뭇 하우바일 목사가 받은 2013년 3월 31일자 전자메일

초대 교회와 종말 교회와의 비교

현대 교회의 영적 형편을 감안할 때, 초대 교회는 대부분 영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급성장과 양성적 발전이 바로 이 이유에 근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A.W. 토우저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21]

우리는 성령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교회로 남아있으며 승리하는 삶은 아직도 요원한 목표로 보입니다. 교회의 육신적 상태가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의 부진을 야기하는게 아닐까요?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육신적 상태에서 시작되는게 아닐까요? 개인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심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구는 원래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무리 없이 잘 적용됩니다.

요하네스 마아거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자들이요, 후자는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고, 혹 성령의 침례는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목회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나는 정통 신학교육을 받았다. 나는 기본적 성경 용어에 익숙하고 능란하게 성경을 해설할 수 있다. 나는 성경 진리를 이해했고, 지적으로 수용했고,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교리학에도 능통하다. 나는 설교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나의 설교는 현대 감각에 잘 맞는다. 이 모든 지식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 나는 책이나, 교육, 첨단 기기(機器), 카리스마 같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대신하려 한다."

---

21 Dr. S. Joseph Kidder, *Anleitung zum geistlichen Leben* (Andrews University), PPP Folie 2

"설교와 공중 기도, 교회 활동, 전도회 준비, 목회자 상담 -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아무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잇여사께서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1증언 383) 설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규 교육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들이 쉼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다."[22]

요하네스 마아거 목사는 전도 부흥사로, 조직신학 교수로 다년간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베른에 위치한 유로-아프리카 지회(현 중유럽 지회)에서 목회부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독일의 프리덴자우에 거주하십니다.

요약: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 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 신앙의 주요 걸림돌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러히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으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 말씀을 몇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6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레미야 13:23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스겔 36:26, 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2 Johannes Mager,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Following the Steps of the Holy Spirit), (Lüneburg, 1999), Pages 102, 103

로마서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개역개정)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현대어성경)

화잇여사가 이 주제에 관해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 없이 구원 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23]

저자의 소견에는, 위에 인용한 말씀들이 성령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던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에 과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돼!" "또 실패했잖어!" 이런 자의식을 가질 때 마다 우리는 당연히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문제는 노년층 보다는 청년층에 더 현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회 생활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망되는 일이 발생해도 젊었을 때 처럼 쉽게 짜증 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연령의 다소에 상관 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젊은이들 세계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뿐입니다. 믿음의 여행 노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 할까요? 기도를 더 진지하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또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쉽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분들도 있을겁니다. 또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진짜로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해결책이므로 조만간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결을 향한 바른 접근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

23 이지 화잇, *가려뽑은 기별 1권,* 364쪽

길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넘치는 기쁨과 의욕, 정신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제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육신적 신앙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을 싫어하시는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육신적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게 모르게 바람직 하지 않은 모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24]

아써 다니엘스 목사의 저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義)"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쳐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25]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우리를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들입니다.

1. 무지 -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2. 불신과 의혹 -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무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

24 이지 화잇, *성경주석* 7권, 963쪽 (계 3:15, 16)

25 아써 G. 다니엘스, *그리스도 우리의 의(義)*, 30쪽

3. 오류 -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흔한 사례일 것입니다.

4. 분주함 -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 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5. 비밀스런 죄, 혹은 미불된 배상금 - 이것은 합선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6. 감정에 의거한 행동 -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 합니까? 로저 모노(Roger Morneau)의 저서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26]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永住)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된 것 처럼 보이는 두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논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논리: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9-13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한다"와 "받으라"는 둘다 희랍어 원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

26 로저 모노, *초자연적 세계로의 여행 (A Trip into the Supernatural),* 43쪽

해결책: 화잇여사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는바, 이 방법은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 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27]

생명은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의 침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평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 곧 성령,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잇여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 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8]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 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알아 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저자의 모친이 20세 때에 어떤 남자분에게 받은 질문에, "저는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분 한테서,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모친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다음 질문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하십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 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

27 이지 화잇, *사도행적*, 285쪽
28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6쪽

위급한 상황

저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단을 책에 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관련된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와 직장, 가족과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저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자는 누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도움 받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이 육신적 상태에 있다고 의식한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제공하려는 이 도움이 누구에게나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큰 손실 대신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곤경에서 신속히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3장과 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 상태를 몇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여러 다른 성향이 표출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근간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 **육신적임 -** 롬 8:1-17; 고전 3:1-4; 갈 5:16-21
- **미련함** - 열 처녀의 비유, 마 25:1-13
  "미련한 처녀로 예표된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와 동일시 되었다."[29]
- **뜨뜻미지근함** -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 3:14-21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 3:15)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함 보다 찬 것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 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 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 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 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 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30]
- **거듭나지 않았음**, 혹은 뒤로 물러감 - 요 3:1-21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 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31]

---

29 이지 화잇, *리뷰엔 헤럴드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30 이지 화잇, *편지 #44,* 1904년; 계시록 3:15, 16절에 관한 성경주석 7권 963쪽
31 이지 화잇, *원고 #148*, 1897년; 성경주석 6권 1075쪽

- **경건의 모양**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딤후 3:5; A.G. 다니엘스 목사님이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쳐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32]

  다음 화잇여사의 글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던져줍니다.

- **극소수** -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었다. 그의 손에는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33]
- **20명 중 한명도 준비되지 않았음** - "이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교회 명부에 기록된 교인들의 20명 중 단 한명이라도 세상에서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고있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다를바 없다." [34]
- **왜 졸고있는가?** -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있기 때문이다." [35]
- **큰 위험** -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점에 실패하여 구원을 영원히 잃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의 애소(哀訴)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36]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요 16:9)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철저히 굴복하느냐로 판가름 됩니다. 전적인 굴복으로 사실의 여부를 증명합니다. 매사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의 여부로 사실이 판가름 됩니다.

---

32 A.G. 다니엘스, *그리스도 우리의 의(義)*, 30쪽
33 이지 화잇, *가려뽑은 기별 1권*, 109쪽
34 이지 화잇, *그리스도인 봉사*, 41쪽
35 이지 화잇, *각시대의 대쟁투*, 507쪽
36 이지 화잇, *정로의 계단*, 32쪽

이 심각한 내용을 여기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현세와 내세의 개인적 행복이 걸려 있고, 또 결혼 생활과 가족과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

의문중의 의문은,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일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의문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견지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경고들에 감사함

그런데 알고보면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경건의 부흥입니다. 이점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 부흥에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해 종용하시는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열거한 것들이 그 중 몇몇 이유가 아닐까요?

-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경감해 주시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계 12:7)을 통해 세상에서 위대한 경건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계 18:1, 2)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육신적 상태에 처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주제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장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동기와 내적 기쁨

"교회에서 한 자매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저는 완전히 압도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내용의 책을 갈급해 왔었는데 이제서야 찾았습니다. 그 때 저는 저의 신앙 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개인 헌신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40일 기도책을 한 장씩 읽습니다.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

점가까와지고, 더 깊고 친밀하게 되어갑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40일 헌신기도 제1권을 끝낸 다음 제2권도 공부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 기도책들을 네번 반복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한번이라도 거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속 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 많은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지요.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는 제게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H.S. (약명)

제 3 장

우리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 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단계의 해결 방안 - 곧,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으며 전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것 - 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생활 지침입니다. 왜냐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 15:11) 이 두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입주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야 말로 완벽한 행복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14장의 "성

37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6쪽

령의 약속"과 16장의 "성령의 사역"에 관한 내용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두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매일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매일 믿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매일 예수께 굴복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께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매일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진하여 예수께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하여, "내가 매일 죽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박히기 위해 처형 장소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이 신체적 생명과 힘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습니다. 이 영적 생명을 강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역시 **매일같이** 속사람을 주의하여 보살피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신체적 삶이나 영적 삶에서 이런 보실핌이 등한시되면 우리의 심신은 연약해 질 것이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듯이, 장래의 필요를 위해 성령을 미리 받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적*에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 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38]

*시대의 소망*에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39]

---

38 이지 화잇, *사도행적*, 285쪽
39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313쪽

다음은 화잇여사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를 좇기 위해서는 아예 시작부터 전적인 회심이 요구될 뿐 아니라 첫 회심의 경험이 **매일** 반복되어야 한다."[40] "처음 회심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철저했을지라도 그 회심의 경험이 **매일** 새롭게 되풀이 되지 않으면 첫 회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41]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발앞에 놓나이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그대가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 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섭리에 따라 이행하기도 하고 단념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그대들은 날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갈 것이다."[42]

모리스 벤든 목사님의 말입니다. "회심이란 매일 반복되어야 할 경험이다. 그대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것은 그대의 삶에서 획기적 이벤트가 될 것이다. 산상수훈 101쪽에 이런 약속이 있다. '만일 그대가 매일 주님을 구하며 회개한다면 … 그대의 불평 불만은 잠잠케 될 것이고, 그대가 겪고 있는 모든 애로 사항이 제거될 것이며, 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문제가 해결될 것이다.'"[43]

매일 자신을 반복하여 굴복시킴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처음 믿었을 때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과 꼭 같이 현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시 모리스 벤든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거함으로 생겨나는 관계는 우리로 하나님께 부단히 굴복하게 하고 매 순간 그를 의존하게 한다."[44]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예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 또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요 6:37)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 우리는 수적(數的) 우위 대신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으로 승리를 도모해야 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 안에서 전진해야 한다."[45]

---

40 이지 화잇, *성경주석 (Bible Commentary) 1권,* 1113쪽
41 이지 화잇, *편리뷰엔 헤럴드 (Review and Herald)*, 1885년 1월 6일
42 이지 화잇, *정로의 계단*, 70쪽
43 모리스 벤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95개 논제,* 96쪽
44 모리스 벤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95개 논제,* 233쪽
45 이지 화잇, *성경주석 (Bible Commentary) 2권,* 1003쪽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사하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관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만 헌신한 온 군단의 병력보다 100% 헌신한 한사람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46]

화잇여사의 말입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 받을 것이다."[47]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최대의 에너지를 발동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갑절로 늘이시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함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48]

매일의 헌신, 자신을 구별함, 굴복시킴, 회심등에 관하여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새롭게 받기 위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은 예수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일 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적*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 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 예수께서 남기신 모본은 믿음,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그의 사업에 아낌 없이 헌신하도록 이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49]

만약 예수님에게 이같은 매일의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의 필요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

46 Dr. S. Joseph Kidder, *Anleitung zum geistlichen Leben* (Andrews University), PPP slide 14

47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523쪽

48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827쪽

49 이지 화잇, *사도행적*, 56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늘 보살핌을 받아야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19절에서 사도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음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 지속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에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초자연적 힘을 가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경미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흐르는 전류 처럼, 우리가 감지할 수 없을지라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주입됩니다.
-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사는 삶입니다.(요 10:10; 골 2:10)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희랍어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하네스 마아거의 풀이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50]

2014년 장년 안교 교과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번의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어야할 경험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에 '채우다' 라는 뜻의 희랍어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51]

윗절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미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 …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에베소의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4장 13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

50 Editor Werner E. Lange, *Unser größtes Bedürfnis* (Lüneburg, 2011), p. 42
51 *장년 안교 교과* 2014년 7월 17일

다음은 화잇 여사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52]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하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며 전인적 품격을 높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53]

주님께서 화잇 여사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 신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선물 안에 이미 준비하신 것들, 즉 **매일의** 공과와 **매일** 부어주시는 **신령한 열심과 권능**을 받을 것이다."[54]

화잇 여사가 이에 덧붙여, "우리는 한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55]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매 순간 하나님의 사자와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단히 **더욱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해야 한다**."[56]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다. "사도의 시대에 신자들을 한마음으로 묶어 준 같은 **사랑의 침례가 오늘 그대에게도 필요하다**."[57]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령의 침례(성령으로 충만케 됨)는 매일 반복되는 사랑의 침례(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케 됨)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의 권세가 깨어졌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

예수께 매일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탄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예배는 신앙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매일 드리는 헌신 예배와 안식일 준수는 신령한 삶의 기반입니다.

---

52 이지 화잇, *사도행적*, 50쪽

53 이지 화잇, *가려뽑은 기별 1권*, 374쪽

54 이지 화잇, *시기의 징조,* 1910년 3월 8일

55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313쪽

56 이지 화잇, *리뷰엔 헤럴드 (Review and Herald),* 1897년 3월 2일

57 이지 화잇, *교회증언 8권,* 191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원할 진대,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화 아래 변화함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성경 구절과 여러 다른 인용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드릴 개인적 헌신 예배의 중요성에 분명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는 모든 성막 예배 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조석의 번제와 아울러 안식일을 위한 번제가 추가되었습니다.(민 28:1-10) 번제는 어떤 중요한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습니까?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철저한 굴복을 예표했다. 여기서 예배자는 제물 중 자신의 몫으로 조금도 떼어놓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58]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지정된 시간들은 성스럽게 여겨졌으며 그 시간은 유대 온 나라를 통하여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은 예배의 정신이 결여되고 의식의 반복에 불과한 제사는 정죄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범한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필요되는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59]

여기서, 영적 삶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와 안식일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께 매일 굴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께 굴복하려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됨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칙은, 매일 매사에 하나님을 최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의 소유로 삼지 않으시렵니까? 산상 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58 Fritz Rienecker, *Lexikon zur Bibel* (Wuppertal, 1964), p. 1017

59 이지 화잇, *부조와 선지자*, 353쪽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마 6:33; 킹제임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눅 17:21) 우리가 조석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탄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 그 날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요 15:1-17 참조) 저자는 날마다 더욱 풍요롭고 보다 위대한 믿음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에서 영적 힘을 얻으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식사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의 식사로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와 개인적 헌신 없이 육신적 상태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라도 이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다만 의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예배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몇년 전 저자는 윌 바우스(Will Vaus)의 저서 *"나의 부친은 조폭 단원이었다 (My Father was a Gangster)."* 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짐 바우스는 전문적 범죄자였다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흠잡을 것 없는 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바우스와 같은 극적인 회심의 경험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제게 이미 알려진 모든 죄와 아버지께서 앞으로 깨우쳐 주실 모든 죄를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한시간 일찍 기상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안식일 예배를 포함하여 저의 개인적 아침 헌신은 제 신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개인적 헌신의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창조주께 드리는 예배와 짐승을 대상으로 한 두 예배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계 14:6-12) 예배의 외적 표징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식일입니다. 예배의 내적 표징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3, 24)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도 되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6)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시 119:142)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없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과 성경에 대한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시된 그릇된 관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례와 성령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물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관한한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D.L. 무디 선생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60]

요셉 H. 와그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되는 곳 마다,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 속에 계신 성령 대신 침례로 자신의 믿음의 보증을 삼는다."[61]

---

60 D.L. 무디 (D.L. Moody), *They Found the Secret*, p. 85, 86 (quoted in "10-Day Prayer and Devotion" by Denis Smith, p. 23

61 요셉 H. 와그너 (Joseph H. Waggoner),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35쪽

침례가 중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는 하나님의 뜻에 꼭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그 중대성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로 과거지사를 들추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실을 **지금** 알아야 하고 또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 또 사울 같은 이들은 **침례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나 에베소교회의 12명의 신자들처럼 다른 이들은 **침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시기가 **침례 전 이거나, 침례 후 거나, 침례시 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어찌됐건 우리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보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다음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 생명을 세상에 태어날 때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음식, 음료수, 운동, 수면 등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매일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장기간 지탱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칙이 우리의 영적 생명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했을 때 성령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령,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등에 의해 유지됩니다. 화잇여사의 말입니다. "천연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 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62]

육체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이든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永住)하시기 위함인데, 성령께서 영주하시기 합당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므로 역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주의하여 보살피는 노력을 규례로 삼기 바랍니다 . 이것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결국 후회스런 귀결을 경험하게됩니다. 미리 잔뜩 먹어둘 수도 없고, 성령을 미리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63] 이제 다음의 두가지 필수적 요점이 꽤 분명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예수께 우리의 삶을 매일 굴복시키는 것, 둘째로 매일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

62 이지 화잇, *사도행적*, 285쪽

63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313쪽

이 두가지 요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는 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굴복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 탄원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절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영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업적들이 성령에 의해 우리 안에서 재현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예수님의 업적을 우리 마음에 회생(回生)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된 화잇여사의 명쾌한 주석입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뻔 하였다.** … 세상의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있다 ."[64]

토마스 A. 데이비스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업적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그 효력을 나타낸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업적, 부활과 하늘 성소의 중보사업 등이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사역 없으면 그리스도의 업적은 세상의 어떤 대형 종교단체나 도덕적 지도자들의 실적 보다 두드러지게 유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들 보다 모든 면에 월등하신 분이셨지만, 자신의 모본과 가르침만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역부족이셨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65]

위의 인용구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확인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죗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

64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1, 672쪽

65 Thomas A. Davis, *Als Christ siegreich leben*, (HW-Verlag), Seite 43/ How to be a victorious Christian.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66]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삶에서는 귀중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삶에는 큰 결핍과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제가 과연 성령의 충만을 받은걸까요?

성령의 충만에 관련하여, 각자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시다.[67]

-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고, 귀중한 분이 되셨는가? (요 15:16)
- 나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을 내가 인식하고 청종하는가? 나의 삶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가? (롬 8:14)
- 내 마음 속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동기가 생기는가? 친구 대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이웃들을 애정어린 연민으로 대하며, 깊은 관심으로 대하는가? (갈 5:22; 약 2:8, 9)
- 내가 이웃들을 대하는 일에 성령께서 거듭거듭 도움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는가?
-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 성령께서 나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가? 나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탄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과 더 친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되는지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신도가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습니다. "제 부친과 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와 *'40일 헌신기도책 1권과 2권'*을 공부한 다음 놀랍게도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삶의 전반에 두루 성령의 역사가 미치는 것은 제게 아주 신명나는 경험이었습니다.

---

66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173쪽

67 Catherine Marshall, *Der Helfer* (Erzhausen, 2002), p. 24

부자지간의 화해

저와 제 부친과의 관계는 늘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제가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끊임 없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은 저와 제 부친과의 관계 호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악화의 일로에 있었습니다. 육칠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의 공허감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공부하며 기도하던 중 제 아내와 저는 믿음의 산경험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제 부친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제 부친을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부친이 제가 어릴 적부터 제게 잘못하여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제 부친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친은 더 영적인 신자가 되었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참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저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익명씨)

기도: 나의 주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제 안에 영주(永住)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굴복하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다 보니, 주님과 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지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성령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해 주세요. 성령께서 저와, 제 가족과, 제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탄원할 때 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의 추가 해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보면, "충만함을 받으라"는 구절이 명령형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은 신자 각자의 의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랍어 원문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한 요하네스 마아거(Johannes Mager)의 해설입니다.

"신약의 편지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딱 한군데 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은 영적 선물로써,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강력한 효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한 것을 볼 때, 이 명령은 어떤 특정 상황과는 상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간결하면서도 중대한 명령에는 다음에 열거된 네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있다.

1. '채우다'(*plerein*) 라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하게 충고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상 위에 올려 놓고 받던지 거절하던지 양단간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명령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하고 안하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분투 노력이 요구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다.
2.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이다. 이 명령은 특별한 책임을 맡은 어떤 특정 교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령의 충만은 몇몇 특권층의 신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아니다. **이 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3. 이 동사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었다. '네 자신을 성령으로 채우라'고 하는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다. 자기 스스로를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자주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으므로, 우리의 능동적 의지 없이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다.**
4. 이 명령은 희랍어로 현재진행형이다. 명령형 부정과거가 딱 한번 일어난 행위를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명령형 현재진행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를 묘사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번에 그치는 경험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점진적 경험이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단 한번의 충전으로 만족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재충전되어야 하는 건전지의 성질과 비슷하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침례시에 받는 성령의 충만은 - 이것이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받는 물과 성령의 침례일 경우 - **주의하여 유지되지 않으면 본래의 충만 상태가 상실될 수 있다**. 혹 상실되었다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일하실 수 없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쉽사리 무기력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유하셨느냐에 관한 논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끊임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전달하시는 이유이다.** 한번의 침례와 반복되는 재충전 - 이것이 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다."[68]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

---

68 요하네스 마아거 목사는 전도 부흥사로, 조직신학 교수로 다년간 봉사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베른에 위치한 유로-아프리카 지회(현 중유럽 지회)에서 목회부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은퇴하여 독일의 프리덴자우에 거주하고있다. 위의 인용구는 그의 저서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Following the Steps of the Holy Spirit), (Lüneburg, 1999) 에서 발췌한 것임.

* 이지 화잇, *산상수훈*, 20쪽

** 요하네스 마아거,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Lüneburg, 1999), Seite 101

제 4 장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가 무엇일까요?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의 비교

개인적 차원에서,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초래할 귀결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육신적 신자들의 상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롬 8:6-8; 계 3:16)
- 하나님의 사랑 - 아가페 사랑 - 이 마음 속에 없습니다. (롬 5:5; 갈 5:22); 그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사랑에 의존하려 합니다; 육신적 욕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 5:16)
-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았습니다. (엡 3:16, 17)
-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지 않습니다. (요일 3:24)
-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행 1:8)
-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고전 3:3)

-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 받기를 싫어 합니다.
- 이들의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연인 처럼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육신적 힘과 재능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 3:16-21)

육신적 신앙이 미치는 영향

저자가 일선에서 목회할 당시 제 자신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제 가족과 제가 담임했던 교회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들의 영적 결핍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에 누적(累積)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년과 청년

그리스도교의 육신적 상태는 진보주의 정신의 온상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인들은 성공할 가망이 없는 일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육신적 신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건전한 동기에서 신앙을 영위한다 해도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육신적 신앙의 본보기를 남겨준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들도 육신적 문제로 인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애석하게도 교회를 떠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제 믿음을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느 노인 신도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인과 청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신앙상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한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실패한 것입니다."[69]

뜨뜻미지근한 교회의 상태(전적인 굴복이 없는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70]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화잇여사의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71]

저와 제 아내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로 우리가 적잖은 손실 당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간과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헌신하며 성령을 구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누릴 자식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영적 신자들과 육신적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단위의 친교 모임에서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모임에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서로 다를 것입니다.

육신적 신자들 중 보수적인 이들은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69 Garrie F. Williams, *Erfülltsen vom Heiligen Geist - Wie erfahen wird das?* S.8

70 이지 화잇, *편지 #44, 1903년; 성경주석,* 7권 963족 (계시록 3:15, 16)

71 이지 화잇, *새자녀 지도법*, 69쪽

진보주의적 신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앙 문제를 경솔히 다루며 세상적 풍습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하나님의 가납하심을 못 받습니다.

요셉 키더 교수가 현대 교회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십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한 신자의 장기적 부족."[72]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결핍된 것과(요 15:1-5), 지나치게 인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슥 4:6) 요셉 키더 교수 역시 성령의 충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행 1:8)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 34, 35)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사랑(아가페)"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영구적인 권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마음)은 이런 사랑을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73]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잇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백 가지 중 아흔 아홉은 해결될 것이다."[74]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절에는 부부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거룩한 관계와 상호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

---

72 Dr. S. Joseph Kidder, *Anleitung zum geistlichen Leben* (Andrews University), PPP folie 3+4

73 이지 화잇, *사도행적,* 551쪽 (계시록 3:15, 16)

74 이지 화잇, *교회증언 4권*, 348쪽

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부부관계가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육체적이요 정욕적인 관계와 대조되었습니다. 이 여섯 구절에 "거룩함"이란 단어가 3회 등장하고, "성령" 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생활이 부부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정욕 위주의 부부 관계가 애정 중심의 부부 관계로 대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상호 연합할 것에 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1)

윌리엄 G. 죤슨 박사의 말입니다.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 같다. 수레의 반대편에 말을 맨 격이 되었다."[75]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음은 화잇여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인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골 1:27)."[76]

교정 상담 (矯正 相談)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상담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주로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장로들과 목사들도 육신적 상태에 있다면 교회가 상담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자가 일선에서 목회할 때 영적 신자들이 상담을 통하여 실수하는 육신적 신자들을 바로 잡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피상담자가 회개와 자복하는 지점까지 이르면 그 상담은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자 자신이 영적 신자가 아닐 경우 상담이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권한이 남용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마 18:15-17; 고전 3:1-4; 고후 10:3; 유 19)

---

75 William G. Johnsson, *Adventgemeinde in der Zerrelßprobe,* (Lüneburg, 1999), p. 118
76 이지 화잇, *가려뽑은 기별*, 1권 386쪽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기별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신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에 관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습이었습니다.(암 3:7)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예언적 기별들이 엘렌 화잇에게 주어진바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세상사에 많은 변동이 생겼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될 예언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대말로 이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화잇여사는 이 예언적 기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잇여사의 권면들의 많은 부분이 생활 방식의 개혁이나 책망과 경고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면들을 수용하기가 영적인 신자들에게는 쉽지만 육신적 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자들이 권면들을 잘 수용한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영적이라고 단언하면 안됩니다. 다음 신명기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합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 18:19)

위의 말씀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기별을 수용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섯 가지의 시금석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다음에 열거한 다섯 가지의 시금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기의 참됨을 증거해야 함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지니" (마 7:15-20)
2. 예언의 성취 - 신 18:21, 22 (요나의 예언과 같은 조건적 예언은 제외됨)
3.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호소함 - 신 13:1-5
4.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함 (요일 4:1-3)
5.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함 (요 17:17)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선지자의 예언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대하 20:20)

장년 안교 교과에 보면, 참 선지자의 권면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는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형편과 다를 것이 없으니, 곧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두어 지고 대신 악한 세력의 압제가 들어서는 것이다."[77]

---

77 *장년 안교 교과*, 1989년 10월 12일, 8번 질문에 대한 해설

기획과 전략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회 운영과 선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획과 전략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데 있습니다.

저자는 침례 받은지 65년, 목회로 보낸 세월은 43년입니다. 우리 교단은 넘치도록 많은 기획과 방법을 개발해 왔고, 우리는 이점에 특심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5년 연례 대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 영적 파산 상태(성령의 결핍)를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다."[78]

이와 관련하여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자는 기획이나 프로젝트등을 반대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런 인위적 수단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았나 염려된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낼 수 없다. 언변 좋은 설교자, 화려한 종교 음악회, 또는 위성 중계 방송 등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79]

침례와 영혼 구원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할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참조) 독일에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침체 상태에 있거나 숫적으로 감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은 세계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교인 수가 20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침체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저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수 많은 기획과 프로젝트등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노력

78 Helmut Haubeil (Hrsg.), *Missionbrief Nr. 34,* (Bad Aibling, 2011), p. 3
79 Dennis Smith, *40 Days - Prayer and Devotions to Prepare for the Second Coming*, 88쪽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결핍된 불필요하고 가망성 없는 일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이제껏 자금과 시간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이 형편을 잘 묘사하는 화잇여사의 언급입니다.

"한번도 회심해 본 경험이 없는 교인들과 한 때 회심했으나 뒤로 물러간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육신적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80]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 밖에 없는 곳에 일백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81]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침례를 베푸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화잇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 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82]

---

80 이지 화잇, *교회 증언* 6권, 370쪽
81 이지 화잇, *교회 증언* 9권, 189쪽
82 이지 화잇, *원고 148* (1897)

위에 인용된 원고문은 1897년에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의 교회 형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때는 그렇다 치고,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 전파

다음의 인용구는 성령과 설교의 관계에 대한 화잇여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 선포가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시다. 성령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들과 약속들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부딪쳐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83]

말씀 전파는 설교 말고도 다른 방법, 곧 강의나 성경 연구,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랜디 맥스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84]

혹시 성령의 결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밀리오 크넥틀리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뒤엎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불화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언쟁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곤경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숨어있다. 우리는 사랑과 경고가 잘 배합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85]

이 문제의 해결책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83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1쪽

84 Randy Maxwell, *If my people pray,* 11쪽

85 CD *Die letzte Vorbereitung*, Teil 6

성령과 우리의 출판물

다음은 우리의 출판물에 관한 화잇여사의 언급입니다. "출판물을 위해 기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면, 필자의 정신이 독자들에게도 감지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은 우선 천사들의 승인을 받고, 또 읽는 독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낀다. 그러나 필자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을 때 쓰여진 글은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천사들에게 슬픔을 안겨준다. 그 글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줄 수 없어서 천사들은 돌아서고 만다. 말씀은 좋을런지 몰라도 그 속에 성령의 온화한 감화력이 결핍되어 있다."[86]

다시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 교단이 이룩한 업적이 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크게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최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이었느냐 아니면 육신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할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 상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투입한 많은 시간과 우리가 성취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무 소용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 이른비가 없으면 늦은비도 없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른비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늦은비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이다."[87]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88]

성령과 성경적 성화

"이 사업(성경적 성화)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89]

---

86 이지 화잇, *PH 016*, 29쪽

87 Dennis Smith, *40 Days - Prayer and Devotions to Revive Your Experience with God*, Book 2, p. 175

88 이지 화잇, *믿음으로 사는 삶,* 333쪽

89 이지 화잇, *각시대의 대쟁투*, 469쪽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대규모 기관의 설립, 성공적인 전도회, 그리고 거창한 선교 전략등이 성령의 임재 없이 기획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아공이 낳은 위대한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스도교계 전반에 현실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을 일찌기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설교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권능이 현저하게 결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들은 나를 심히 염려하게 한다.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설교에 영혼을 회개케하는 권능이 어찌 그리도 결핍되어있는지, 많은 선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하는 성공적인 목회가 왜 그리 희귀한지, 성경 말씀이 신자들을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도록 바로 세우는 일에 왜 그다지도 무력한지 의문을 가져 보았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육신과(참조: 갈 3:3) 인간적 노력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90]

성령과 건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 17)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킹제임스) (참조: 출 15:26)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출 25:8)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드린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정성껏 다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

90 Randy Maxwell, *If my people pray,* 145쪽

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몸을 정성껏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수련을 달게 받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 끼치는 향상된 건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투쟁과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출 15:26) 치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경우 환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실까요?

"한 연로한 캄보디아 여인이 타일랜드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여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예수께 치료받기 위하여 왔노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기에 이르렀고 심신의 치유도 경험했다. 그녀는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날까지 그녀는 37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91]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대신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음식, 운동, 휴식 등의 자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남겨 놓으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고후 12:7-10)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화잇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력이다. 하늘에는 건강 밖에 없다.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 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 질 것이다."[92]

한 사업가로부터 저자가 받은 전자메일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석했던 모든 건강 세미나로부터 이제껏 별 유익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그의 생활 양식은 전폭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답니다.[93]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쾌히 건강 식생활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한 여신도가 이 경험에 관해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전자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순식간에 변화 시키셨습니다. 헌신 기도를 드린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서 커피머신 옆에 서서

---

91 저자 미상, *일용할 떡 - 기도력*, (RBS Ministries), 1993년 11월 26일

92 이지 화잇, *의료 봉사*, 12쪽

93 2013년 7월 3일 자 전자메일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을꺼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이건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과거에 커피를 끊으려고 몇차례 시도했는데 그럴 때 마다 저는 닷새 동안 지독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금단증상(禁斷症狀)이지요. 이번에는 제게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 염려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일념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커피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94] 이 커피에 관련된 경험은 그 여신도의 삶에 일어난 여러 변화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참조: 독일어 뉴스레터 *"Andreabrief"* 에 술과 담배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기사가 실려 있음)[95]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는 실질적인 건강개혁이 일어납니다. 건강기별이 성령의 권능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위마에 위치한 뉴스타트 글로벌의 단 매킨토쉬 원장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교육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활성화 된 건강정보다. 이것이야 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96]

팀 하우 박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교육 그 자체가 의료선교는 아니다. 건강교육이 치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건강이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97]

믿음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충만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조: 막 16:17, 18; 약 5:14-16)

재림을 위한 준비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재림 준비는 갖추어진 것입니다. 알고보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자세한 공부를 위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와 지구상의 마지막 사건들 (Spirit Baptism and Earth's Final Event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4 M 자매가 보내온 2014년 11월 18일 자 전자메일

95 Andreabrief Nr. 5, Sieg über Tabak und Alkohol, www.missionbrief.de—Andreasbriefe. Man kann ihn auch beziehen bei Wertvoll leben, Adventist Book Center und TopLife—Wegweiser Verlag.

96 Dave Fiedler, *D'Sozo,* (Remnant Publications), Forward

97 Dave Fiedler, *D'Sozo,* (Remnant Publications), Forward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현대 한국어로 “아는 것”이라는 표현 보다 더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희랍어로 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는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상이 다음의 인용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98] 열 처녀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 모자란 것이지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마 25:1-13)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준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재림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세대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종말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계 14:6, 7)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길래 온 세상이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기별입니다.(엡 2:8, 9) 이 마지막 기별을 권능으로 선포할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데, 내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명됩니다. 이 기별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계 18:1)

진리를 사랑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이 진리 사랑, 말씀 연구, 또 진리를 행위에 옮기는 것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데살로니가후서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살후 2:10)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에 진리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98 이지 화잇, *리뷰엔 헤랄드*, 1892년 4월 5일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고 했고,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영감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미온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생각합시다.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 오늘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99]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진리를 발견했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가 육체의 행위인가

"성령의 감화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에게 직접 말을 건넬 수도 없지만, 성령은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각 사람들의 곁에 가까이 계신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한 성령의 역사는 두가지다. 첫째는 그들 안에서 하시는 역사요, 둘째는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다. 성령께서 내주(內住)하시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 ... 가 드러나 보인다."[100]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 23);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9)

갈라디아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죄의 권세가 꺾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참조: 롬 7:23-25; 8:1)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6-21)

---

99 이지 화잇, 각시대의 대쟁투, 625쪽

100 프란시스 D. 니콜 (편집인), *성경주석 6권*, 1112쪽

영적 은사

“영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한다. 곧,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은사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은사들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교회의 증언들을 검증해 준다.”[101]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여러 재능들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써 ... 일하게 하였노라.”(출 31:2-6)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천적, 후천적 재능을 그의 발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선천적 능력들이 다듬어지고 순화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재능들이 더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영적 은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니면 사람의 선택?

우리 교단은 민주적 체제를 가진 세계적 기관이지만, 다수 민주주의 체제는 아닙니다. 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운영위원회의에 앞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알려지도록 다시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5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생각을 넣어 주사”(킹제임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잇여사는 느헤미야서 1장을 해설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한 거룩한 목표가 그의 마음 속에 태동하고 있었다.”[102]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의도적으로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지 않았다면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시 66:18; 25:12) 어떤 육신적 신자가 자신의 지식 한도 안에서 진지하게 투표했다면, 인간적 견지에서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모종의 합의가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것은 인간적 조작이요 죄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지도자로 선출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투표의 결과에 따른 인간적 결정인지에 따라 그들의 지도력이 교회의 향방에 미칠 영향은 실로 중대한 것입니다.

---

101 Hrsg Gerhard Rempel, *Schlüsselbegriffe adventistischer Glaubenslehre*, (Hamburg), p. 44
102 이지 화잇, *Southern Watchman*, 1904년 3월 1일

저자가 한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있을 때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리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시 32:8)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은 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경험이 "한 사업체의 중역으로부터 목사로"(현재 독일어 본 밖에는 없음)[103] 라는 기사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독일어 설교가 있는데, 쿠르트 하아젤 목사님의 "바른 결정 내리는 법"[104] 이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설교문이 있는데 역시 독일어로 쓰였습니다. 헨리 드루몬트 목사님의 설교로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105] 입니다.

다음은 2014년 10월 23일에 일어났던 이야기 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카린티아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시골생애 협회"의 선교 센터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증축 공사를 놓고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더 이상의 찬반 토론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다음 10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인 23일에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한 것이지요.

기도회에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증축 문제를 놓고 기도회를 마친 다음, 각 직원은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직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답을 다음과 같이 종이에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찬성이면 "+", 반대면 "-", 기권이면 "0", 모르겠으면 "?" 기호를 종이에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가 14표(이 중에 네표는 "+?" 이었음), "0"가 6표, 백지가 4표 나왔습니다. (의사를 분별할 수 없는 표가 두개 있어서 무효 처리 되었음) 그래서 증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여쭙는 사례가 더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자의 확신입니다.

다음은 화잇여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뚜렷이 들리도록 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라고 명하신다."[106]

---

103 www.gotterfahren.info - Gott verandert Leben - Vom Prokurist zum Prediger

104 www.gotterfahren.info - Wege zum Ziel: Gott erfahren - Gottes Botschaft für unsere Zeit - Thema Nr. 11

105 Missionbrief.de - Predigten lesen - Henry Drummond: Wie erkenne ich den Willen Gottes? (Deutsch und English)

106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363쪽

금전

영적 그리스도인들과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금전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은 자신을 재물의 소유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기십니까? "돈에 대한 사랑과 허식에 대한 사랑이 이 세상을 도적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편만할 탐욕과 압제를 묘사하고 있다."[107]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보호함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시 34:7) "수호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이 하늘의 감시자들은 의인들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 준다"[108] 위의 두 인용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범주 속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위의 약속이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 27:1)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1장은 아주 좋은 읽을거리입니다. 선한 천사들의 섬김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끝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몇가지 국면을 고찰하였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다룰 수도 있었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신앙의 여러 국면 중 어느 부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예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러 국면 중 어느 부분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함

---

107 이지 화잇, *선지자와 왕*, 651쪽

108 이지 화잇, *각시대의 대쟁투*, 512쪽

으로 손실을 당하지 않는 예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 충만을 목표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 해 전 일어난 일이다. 도오꾜 공항에서 런던행 보잉 707 제트가 이륙했다. 아주 성공적인 이륙이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곧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이 승객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좀체로 보기 힘든 멋진 광경을 즐기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산 주위로 한 바퀴 선회하기로 했다.

조종사는 곧 지정된 비행 행로에서 벗어나 시계(視界) 비행 모드로 들어갔다. 시계 비행 모드로 비행할 동안, 조종사는 지상 관제탑의 안전 수칙을 잠시 보류하고 오로지 자신의 육안으로 인지되는 것에만 의존하게 된다. 바로 밑에 근접한 후지산이 보였고, 고도계는 4000 미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조종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후지산 주위로 맹렬히 불고 있는 활강(滑降) 바람이었다 활강 바람은 산비탈을 좇아 내려 부는 거센 바람이다. 보잉 707 제트기가 그 거센 바람을 필적(匹敵)할 수는 없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고장을 일으키고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109]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시계(視界) 비행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내려 집니다. 그들이 건전한 동기로 시작한 일도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반면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삽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 거주하시도록 섭리하시고, 제 삶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해 더욱 폭 넓은 안목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 제가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해답을 발견하는 대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109 Kalenderzettel February 17, 1979 by Reinhard Petrik

제 5 장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해결책을
어떻게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개역개정)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좋은 기도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에 의거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약속에 의거한 기도

우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제 아들이 학교에서 불어 과목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제 아들을 독려해서 불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할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다음 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으로 이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불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저도 아들을 틈틈히 도와서 그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현관 문을 통과 하자마자, "아빠, 이만원!" 하며 고함치지 않겠습

니까? 제 아들이 이만원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제 약속이 아직 유효하고, 제 아들이 약속의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사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만원이 제 수중에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겠지요?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 못하실 수도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얘, 아들아! 내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단다. 그래서 이만원을 안 주기로 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하고 약속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이제 약속이 이행될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이제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사용될 주요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4)

위의 인용구는 가장 보편적인 약속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과 약속들에 의해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들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5)

위의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응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대개 나중에 옵니다.

저자가 술담배에 중독된 구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대체로 몇 시간이 흐른 다음 담배나 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을 알게됩니다. 바로 이 때 그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실질적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습니다.

화잇여사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한다.”[110]

우리는 외형적 증거를 구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외형적이란 감성적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저 모노(Roger Morneau)에 의하면, “악의 영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독려한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 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111]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상자의 열쇠와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갈되지 않는 개인 은행계좌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112]

두가지 유형(類型)의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차이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약속들, 곧 죄의 사유, 성령,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 등은 항상 주장할 수 있다.(행 2:38, 39 참조) 그러나 현세적 축복들은,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될 때도 있고 거절될 때도 있다.”[113]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에, “…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구원하셨습니다.(단 3)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허스와 제롬은 콘스탄츠 공의회에 의해 화형주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교개혁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은셈인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된 것 같습니다. 어떤 법왕당의 열성분자가 이 두 순교자들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 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발하지 않았다. 불길이 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하였다.”[114]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비

---

110 이지 화잇, *교육*, 258쪽

111 로저 모노, *초자연적 세계로의 여행 (A Trip into the Supernatural),* 42쪽

112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68쪽

113 모리스 벤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95개 논제,* 60쪽

114 이지 화잇, *각시대의 대쟁투*, 109쪽

명을 지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이 이 순교자들의 행동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현세적 약속도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기

또 하나 우리가 신중히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즉각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감사의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경우에 기도를 마치자 마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중에 옵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왕상 19:11, 12) 저자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 일이 없다가, 부지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의식하곤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겠습니다. "…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다음과 같은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적절한 기도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제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조작이 아닙니다. 자기 조작이란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한 다음 그 결과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변화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분파 신자들입니다." 라고 표명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다 할 느낌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물 속에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나서야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혹시 독자께서, "이건 안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십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전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천연계의 경이적인 것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놀랄 것인가?"[115]

잠언 3장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 6) 여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전제 조건도 명령입니다. 만일 전제 조건들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면, 즉각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꺼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116]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고, 또 전제 조건들도 이행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혹시 의심이 생긴다면,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신뢰하십시오.

화잇여사의 저서 "교육"에 "믿음과 기도"라는 장에는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관련된 귀중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저자의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신뢰성을 믿자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눅 11:13 -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한 약속에도 전제 조건이 붙어 있지요? 그 전제 조건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번 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탄원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

115 이지 화잇, *교육*, 170쪽

116 이지 화잇, *산상보훈*, 142쪽

명심할 것은,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다른 구절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총체적 성경 파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을 보겠습니다.

행 5:32 -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위의 성경절이 제시하는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 하나의 성경절에 의존하면 안된다는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면 여러 관련 성경절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기분 내킬 때 한번 쯤 순순히 응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좋으신 구속주시요 친구이신 예수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기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속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 생활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요 7:32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제시된 전제 조건은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므로 즉각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급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갈급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를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에서 상봉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변화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망과 권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 7:38, 39 -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번에는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면 믿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알고 보면 이 성경절에도 약속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는 약속이 명령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겠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롬 8:2)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이 죽임을 당합니다.(롬 8:13)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에 굴종을 강요당하는 삶에 비해(갈 5:18-21)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갈 5:22)은 얼마나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카메라 렌즈를 조립하는 공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렌즈 속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작업장 내부의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줍니다. 작업장의 압력이 외부 보다 높으므로 문이 열릴 때 공기가 안에서 바깥쪽으로 불려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먼지가 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죄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엡 3:16, 17, 19 -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식별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연계의 순환과 흡사합니다. 겨울의 마른 가지가 봄이 되어 푸르러지고 물이 오르는 것은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오관으로 그 과정을 감지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경험한 변화의 과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하심을 따라 저에게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전기는 이미 오래 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엡 5:18 - *"…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혹은 "…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117]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안일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소통하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변화되기 위해 기도했다. 또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

117 Johannes Mager, *Auf den Spuren des Heiligen Geistes*, (Lüneburg, 1999), Seite 101

기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118] 이 인용구를 약속으로 삼고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결과가 없을 때 …?

"와싱턴 디씨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던 르우벤 토레이 목사님과 상담하던 젊은 여신도가 말했다.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내려 놓았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질문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의지를 내려 놓으시렵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예.' '지금 기도하세요.' 그 여신도는 고개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 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 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 놓았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질문했다. 여신도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 놓았어요!' 라고 말했다.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라고 권고했다. 여신도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짤막하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왜? 그 여신도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119]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

저자는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관해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몇번 이런 기도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선별된 성경구절에 의존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견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 드리지 않은 제 과거의 행습이 후회될 뿐입니다. 지난 몇해 전부터 저는 매일 성령을 구할 때 마다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이 제 마음에 밀려옵니다. 2011년 10월 28일을 기점으로 제가 다시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전과 후의 저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118 이지 화잇, *사도행적*, 37쪽

119 르우벤 토레이(Reuben A. Torrey), *성령의 인격과 사역(The Personality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제20장, 성령의 침례, 169쪽

제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 드리기 시작한 다음,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게 더 친밀하고 위대한 분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새로운 깨우침을 받습니다.
-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를 경험합니다.
- 개인의 헌신 기도는 저에게 더욱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제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 제 삶은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행 4:31)
- 저는 대인 관계에서 더 붙임성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니다.
-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영적 선물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 집니다.

이 변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매일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지 얼마 있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전에는 수고스럽고 힘들었던 저의 신앙 생활이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변했습니다. 요즈음 저는 늘 기쁨과 권능을 경험하며 삽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저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제가 담임했던 교회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제 허물을 깨달은 다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각 개인의 결점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누적된 결점들은 눈송이 자라듯 주체할 수 이 없이 커질 것입니다.

저자가 겪은 비슷한 실패를 독자들이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받을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위의 성경절도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소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매일 예수께서 서명하신 수표(약속)를 제시하며 축복들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수표는 제 아무리 진품 처럼 보일지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좌의 소지가가 서명한 수표입니다.

독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하여,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세번이나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매번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마 4:4, 7, 10)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창조주이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권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이 이행되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120]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1)

저자는 이제부터 오로지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일 5:15)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다만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한 날은 그 저녁에 실패한 하루의 일과를 후회하는 대신 복에 넘친 하루를 감사하게 될 것 입니다.

저자가 얼마 전 한 독자로부터 기쁨으로 충만한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하여 수시로 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루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비교하면 두 기도 방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믿었고 약속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매일 약속을 주장하기를 게을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보다 깊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을 주는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121]

이런 이유로 다음 페이지에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모델 기도를 삽입했습니다. 한 페이지 보다 더 짧게 기도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모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기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약속에 의거하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120 이지 화잇, *실물교훈*, 38쪽

121 하우바일 목사님이 받은 전자메일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모델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의 말씀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잠 23:26)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122]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 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요일 5:14, 15)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요 6:37)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요 7:38, 39),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행 5:32),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자들과(엡 5:18),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갈 5:16)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요일 5:15)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엡3:17) 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제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동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서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롬 8:13; 갈 5:16)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저의 죗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옵소서.(요일 5:18)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행 1:8)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

---

122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523쪽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소망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요일 3:24; 요 14:23) 다음은 화잇여사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123] 베드로, 바울, 그외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같은 권능을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성령의 권능에 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엡 3:16)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행복한 믿음의 삶, 권능과 사랑의 삶,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

다음 역시 제게 보내온 독자의 전자메일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상당 수의 교우들이 둘씩 짝을 지어 모델 기도문을 읽으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오개월 동안 제 여자 친구와 함께 이 기도문을 두고 같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 활동은 개인의 신앙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인간 관계와 영적 성장 등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명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도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의견 차이도 점차로 해소되고 있을 것입니다."[124]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호흡으로 숨 쉬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 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125]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불순종하더라도 여전히 자녀이지만, 관계는 손상을 입습니다. 불순종한 자녀는 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지요? 이 경우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자녀 편에서 잘못을 비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사람의 죗된 성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중 아무라도 죄 없다 주장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126]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예수께서 내재하시는 신자들의 삶에서는 죄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고 강인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義)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이 중요한 주제는 잠시 후에 더 상세히 다루어 질 것입니다.

---

123 성경주석, 1112쪽

124 하우바일 목사님이 받은 전자메일

125 Helmut Haubeil & Gerhard Padderatz, *Got, Geld und Glaube* (Eckental, 2009), p. 97

126 이지 화잇, *사도행적*, 561쪽

우리가 장기간 동안 영적 삶을 등한히 하고 신령한 호흡을 중단한 결과로 다시 육신적 신앙으로 전락했다면,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회복되고 끝내 영적인 삶이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랜디 맥스웰 목사의 다음 언급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사망 직전에 처한 교회를 아무 노력 없이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127]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현세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귀한 희생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아침 마다 개인적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권능으로 무장시키십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영감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미는 그리스도의 조성(造成)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감화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128]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시 119:162)

127 Randy Maxwell, *If My People Pray,* 158쪽
128 이지 화잇, 정로의 계단, 73쪽

제 6 장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개인적 경험 및 교회, 합회, 연합회에서의 경험들

어느 신도의 경험담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지난 이년 동안 날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예수께서 제 삶에 더 풍요롭게 거하시는 것이 제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얻은 저의 경험은 말로 형용하기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구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 드리며 간구하는 주제는, 예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매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전에 없던 기쁨이 제 마음에 있고, 중보 기도에 대한 강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하나님을 탐구하며 매일 성령을 구하는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C.H.(약명)

이 신도가 다음과 같이 독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육주일 동안 매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세르비아에서 열린 40일 기도회

"2010년 9월, 우리는 '재림 준비를 위한 40일의 기도와 헌신'을 번역, 출간하여 우리 연합회 내의 모든 교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차후 40일 동안 계속될 주일 단위의 기도회와 매일 기도회를 조직하여 지역 별로 각 교회와 가정에서 신도들이 신선한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이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역에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이던 교인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불목으로 인해 여러 해 동안 서로 왕래가 없던 교인들이 화해하고 함께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10월에 열린 연례 협의회 기간에 대총회의 프로젝트로 "기획: 부흥과 개혁"이 저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기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연합회에서 시작하신 기도회 모임의 연속이라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 기획을 쾌히 수용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본 연합회가 혜택을 입었다면, 그것은 직원들 사이가 원만해진 것과, 직원들이 피차 배려하는 정신으로 연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129]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40일 기도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저는 개별적으로 한권 씩 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재림 준비를 위한 40일의 기도와 헌신'으로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한번 읽은 다음 책장에 넣어 보관해 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취리히-볼프쉬빙클에 위치해 있고, 100여명의 신자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최근에 신앙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2011년 가을에 40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책에는 기도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40개의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령의 충만, 기도, 설교, 예수님의 생애와 영적 교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10월 1일, 저희 교회는 부풀은 기대감으로 4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회에 거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기도 파트너들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만나기도 하고, 문자를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6시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40일은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많은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회와 동시에 진행된 예언 세미나를 위해 드린 기도도 풍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매일 저녁의 강의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손님이 참석했고, 그들 중 20명이 다음번 예언 세미나에 등록했습니다. (2013년 3월 추가 보고: 세미나에 매일 50-60명의 손님이 참석했는데, 이런 규모의 세미나는 지난 20년 이래 취리히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 교회는 끊임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그룹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신도들이 구도자를 찾아가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은 온

129 M. Trajkovski, Southeastern Union Conference, Belgrade, *quoted in www.revivalandreformation.org*

교회에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했던 신도들은 성령의 계속된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제공: 취리히-볼프쉬빙클 재림교회에 출석하는 비아트리스 에거)

독일 쾰른에서 열린 40일 기도회와 전도 집회

죠아오 롯쩨 목사님은 브라질계 독일인입니다. 롯쩨 목사님은 브라질에서 38년 간 교회와 병원에서 목회하셨고, 남미지회와 연합회에서 봉사하시다가 2012년 3월에 은퇴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주님의 손 선교회 (His Hands Missionaries)”와 포르투갈/스페인계 교회에서 봉사하시기로 결정하고 쾰른에 이사오셨습니다.

“쾰른에서 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손님들을 교회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쾰른에서 우선 40일 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포르투갈어 교재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포르투갈계, 스페인계, 독일계 신도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40일 기도 모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100 명의 친구들과 구도자들의 이름을 교회 흑판에 써 놓고,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지 30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구도자들을 위해 30일 동안 기도해 왔노라고 알리고, 다음 안식일에 손님의 날 특별 순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120명의 손님들이 안식일 특별 순서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노르트팔른에서 오신 개인봉사부 부장 크리스챤 바도레크 목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자신의 이름을 흑판에서 발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브라질로부터 안토니오 곤칼브스 목사님을 초청하여 14일 간의 예언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녁 마다 목사님께서 ‘놀라운 성경’ 이라는 주제로 한시간 반 길이의 통역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설교와 노래 가사들은 포르투갈어로부터 독일어로 통역되었습니다. 저녁 마다 찬양대의 음악과 아울러 은혜스런 음악 순서가 있었고, 설교 끝에는 목사님의 호소가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도들은 특별히 40일 기도회의 구도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본당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1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많은 분이 참석했고, 주중 평균 참석자 60명 가운데 정규적으로 참석한 분은 32명이었습니다. 전도회 결과로 여덟 분이 침례를 받았으며 열네 분이 침례반에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열세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몇몇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회를 위해 통역관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카톨릭 신도인 한 교사가 통역을 자원했지만, 그분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

신교인 통역관을 보내주시기를 기도 드렸습니다. 곧, 어떤 식당에서 한 여신도를 만났는데, 그 여신도는 어느 오순절파 교회에서 포르투갈어를 독일어로 통역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신도가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전도회 끝에 이 여신도가 진리를 수용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통역관 마리아가 자기 친구 엘리사벳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13명 멤버의 컬럼비아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분이였습니다. 엘리사벳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 교인 중 몇 분을 데리고 온 결과로 그들 중 두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그의 가족은 현재 침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담은 호프(Hope) 텔레비젼 채널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독일인 여자가 텔레비젼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호프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안식일 진리를 포함한 재림교회의 기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같이 보았는데, 남편도 기별을 좋아했습니다. 어느날 모친을 방문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경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길로 가는 도중에 마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가 텔레비젼에서 본 호프 채널과 연관된 교회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은 그 다음 안식일에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남편을 인도하고, 또 모친을 인도하여 함께 교회에 출석하다가 지금은 세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러시아계 독일인 여신도의 이야기 입니다. 이 여신도는 40일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러시아계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명단에 있는 한 여자분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를 위해 기도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성경적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있었노라고 말했답니다. 이 여자와 다른 이웃들이 전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들 중 두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지앙이란 이름을 가진 브라질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앙은 브라질에 살 때 침례교인이었는데 퀼른에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곧 한 재림교회와 연락이 되어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지앙이 재림교회로 전향한 후 브라질에 있는 재림교인 삼촌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재림교인이 된 것을 알렸습니다. 이 일이 브라질에 있는 모친과 형제 자매들을 크게 놀라게 했고, 자신이 출석하던 침례교회에서는 떠들썩한 뉴스가 되었답니다. 브라질에 있는 지앙의 가족은 안식일에 관해 더 알기 위하여 인근 재림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 브라질에서 다섯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앙의 모친과 두 자매와 다른 친척이었습니다. 지앙은 지금 아르헨티나에 살고있는 자매가 재림기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앙은 오로지 그의 가족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습니다. 집회 후 첫 침례식에서 여덟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독일, 페루, 브라질, 우크라이나, 베네주엘라, 컬럼비아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분들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는 40일 기도회와 겸하여 전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도회 강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 출신 지미 카르도소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전도회였지만, 집회 끝에 네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세 분은 독일인, 한 분은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두 침례식은 쾰른시의 중앙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400명 멤버의 이 교회는 아름다운 침례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다 더욱 위대한 경험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아오 롯쩨 (독일 쾰른시)

살아있는 중보기도: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40일 헌신기도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제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실생활에서 실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런 중보기도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의 대상에게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도 중보기도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마다 이런 산 중보기도를 드린다면 교회 내의 유대감이 얼마나 든든해 지겠습니까?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묘사된 그런 유대 관계가 교회에서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잘 결속된 교회를 오랫 동안 꿈꾸어 왔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때 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라는 제목의 책은 저에게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었고, 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읽은 같은 주제의 책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 기도 생활과 교회의 유대 관계와 중보기도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40일 기도 지침서를 공부하며 기도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H.K. (약명)

몇 주일 후 저자는 위의 글을 보내 준 같은 자매로부터 또 하나의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말했듯이, 저는 40일 헌신기도책을 처음 읽을 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 진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도 찾았습니다. 저에게 열심있는 좋은 기도 파트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H.K.

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에게 지대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 저는 모태 교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정로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장(章),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

어 있다는 마음의 아픔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89쪽에 있는 모델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책이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A.P. (약명)

그(예수)를 알라: "제가 전에 '부흥'이란 주제로 목사님이 쓰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지난 3년 간 이 주제가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으면서 저는 그저 '아멘'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이 책에 너무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단이 본 궤도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본을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숙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온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의 뜻 대로 꼴지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 17:3)* 이라고 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신랑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성전을 가득 채우셨던 것(대하 5:13, 14)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익명의 전자메일)

중보기도의 놀라운 응답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40일 기도' 두번 째 책은 제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기도 목록에 들어있는 구도자 중 몇 분이 그들의 삶에서 180도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저는 한 친구와 깊은 신앙의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말하기를 지난 몇주일 사이에 자신의 삶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 보다 더 자주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전에 좋아하고 중요하던 것들을 이제 초개와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40일 기도책을 소개하고, 제가 그를 포함한 다섯 분을 위해 기도해 왔노라고 했더니 그가 놀라면서,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변화는 자네 탓이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녀가 그의 삶을 100%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릴적부터 교회에 출석했지만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저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40일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신도들이 더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떤 다른 소녀를 위해 제가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주일 간의 수양회에 가게 되었는데, 수양회 기간 중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방을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양회를 위해 출발하기 하루 전, 저는 그 소녀에게 제가 그를 위해 한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수양회 기간 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 드렸습니다. 수양회 기간 중 이 소녀가 전화로 저에게 희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을 해 주셨다고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시고, 디스코와 술이 제공되는 저녁 오락 시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용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고 듣게 되었으므로, 40일 기도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A.M. (약명)

중보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게 매우 소중한 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기독교인 여인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집에서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던 터라, 제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그의 이름을 제 기도 목록에 올리고 ‘생명의 징조’를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침례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그 친구의 형제의 침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식이 때마침 진행되던 40일 기도회 기간 중에 있었고, 저의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거행된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가 말하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웬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느꼈지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여일 동안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제 기도 목록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지는 아주 오래되었다고 했더니, 그가 놀라면서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의 감화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침례식의 신령한 분위기에 제 친구가 압도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례 목사님

께서 회중에게 호소할 때 저는 그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투쟁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굴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것과 자신의 삶을 정리하겠노라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 주말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것을 그는 상상도 못했을겁니다.

저는 몇 주 후 어떤 청년 선교 모임에서 그를 다시 만났는데, 그 모임 기간 중 그의 헌신이 더 다져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끼는 친구가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M.H. (약명)

루드비히스버그/바덴-뷔르템버그(독일)의 교회

"처음 우리는 두 사람 씩 한 조를 이루어 40일 기도책을 공부하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받은 바 축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일주일에 두번 씩 교회에서 기도회를 모이기로 하고 40일 기도책을 낭독했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넘치는 은혜와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새로운 분위기를 주셨습니다. 아주 소극적이던 신도들이 담대히 낯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이변도 일어났습니다. 신도들이 단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신도들과 구도자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40일 기도회 동안 각자 다섯 분의 구도자를 선택하여 중보기도하는 방법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듯 합니다. 안식일 아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문객 중 한 가정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과 '각시대의 대쟁투'를 통하여 이미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접했고 얼마 동안 진리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답니다." 카챠 쉰들러, 크리스챤 쉰들러 (루드비히스버그 재림교회)

40일 간의 체험

"이 모든 것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갈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40일 기도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제 마음에는, 그 책이 제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간호사이다 보니 일하는 날과 시가 고르지 못해 저희 두 사람이 40일 동안 매일 만나 기도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봉착할 것에 대해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저의 결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갈한 심령으로 매

일 그날의 주제에 관해 기도 파트너와 대화하며 함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그 몇 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모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도들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저의 경험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저희의 열심에 감염되어 새로운 기도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주중에 경험한 것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상당수의 청년들도 감염시켰습니다. 40일 기도 모임이 신속히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것에 만족치 않고 새로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이지 화잇의 '마라나타'를 교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하여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번 째 40일 기도 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기간 중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던 구도자 중 한 분이 장기간 결석 끝에 교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저에게 모두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저의 삶은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저의 열망은 날로 자라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 졌고, 교회는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40일의 기도와 헌신' 은 이제 저에게 귀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기도 파트너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제가 염려했던 것 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 드린 영혼들이 저희의 헌신을 감사할 때가 올 것입니다." 힐더가르트 벨커씨는 크라일쉬아임 재림교회에 출석하며, 외과 병동 간호사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매사에 우리의 위대한 모본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눅 3:21, 22)

화잇여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위에 머무셨다."[130]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 중 벌어진 일들은 실로 특기할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131] 예수께서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죗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

130 이지 화잇,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14쪽

131 이지 화잇, *시기의 징조* , 1895년 11월 21일

후 기

성령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좋은 지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렵거나 순탄한 각종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어갑니다.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며 성령의 침례를 추구하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에 대처하여 준비시킬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재림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복음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환란의 때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침례를 받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도모합시다.

저자는 다음의 성경 말씀과 신앙의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 책을 끝맺고자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게 겸손한 마을을 주옵소서.(미 6:8)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제게 넣어 주시옵소서. 제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약속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제 안에서 이행되고 그 결과로 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뜨뜻미지근함과 곁길로 가려하는 성향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로 매일 예수께 자신을 굴복시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에 대한 응답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132] "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133]

---

132 이지 화잇, *가려뽑은 기별 1권*, 121쪽
133 이지 화잇, *가려뽑은 기별 2권* , 57쪽

관련 주제 참고 문헌

- 40일의 기도와 헌신 (제1권): 재림의 준비
- 40일의 기도와 헌신 (제2권):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함
- 40일의 기도와 헌신 (제3권):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 원칙
- 40일의 기도와 헌신 (제4권): 지구의 마지막 사건을 대비함
  데니스 스미스, Pacific Press 2009-2013

- 내 백성이 기도하면 - 기도와 부흥을 위한 11시의 일꾼, *랜디 맥스웰*, Pacific Press 1995
-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소서, *마크 핀리*, Pacific Press 2010
-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 *게리 윌리엄스*, Adventist Review 1991
- 급진적 기도법 (Radical Prayer), *데렉 모리스*, Adventist Review 2008

"개인적 산앙 부흥의 단계" 제2권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안내서

예수 안에 거하라 (Abide in Jesus)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끊임 없이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지 화잇 (시대의 소망 676쪽)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행함으로 얻는 어떤 상급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것이다. 이 때 일하는 편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결과요 권능이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

제 1 장: 예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나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설득력 있는 기별을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 2 장: 예수께 자신을 굴복함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의 의지는 없어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더 강인해집니까? 우리를 예수께 굴복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 3 장: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위대한 성취: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함.

제 4 장: 예수님을 통한 순종

어떻게 하면 순종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책을 다음 웹 페이지로부터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칼리포니아주에서 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가 처음 제 수중에 들어온 것은, 드와잇 넬슨 목사님(하단을 보십시오)께서 매주 방영하는 팟캐스트를 듣고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단번에 저의 삶에 전격적인 변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어 본 성령에 관련된 여러 설교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별반 마음에 와 닫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때를 선택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저도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은 바로 첫 페이지로부터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제시하면서 우리로 잠시 멈추고 삶을 되돌아 보게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여러번 반복하여 읽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 책을 주제로 설교할 때 마다, 성령에 대한 주제는 제게 점점 더 흥미로와 집니다. 묘한 것은, 이 주제에 관한 기별은 들을 때 마다 처음 접하는 기별 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 책의 첫번 째 장을 다 읽기도 전에, 저는 그 안에 담긴 주제로 이미 3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 책을 손에서 뗄 수 없군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교회에 분명히 반영되고 있답니다. 저는 말씀을 널리 뿌리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 해 제가 담당한 지역에서는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신도들 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권능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신년에는 보다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D.R.(약명) 2018년 1월 (발췌문)

드와잇 넬슨 목사님*은 앤드류스 대학교 내의 파이어니어 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이 작은 책이 나의 속사람에 변화를 일으켰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목사님은 아래의 주제로 세번에 걸쳐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2017년 9월 2일에 첫 설교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신종교개혁: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넬슨목사님은 설교 중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에서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모든 청중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 설교 후 천여권의 책이 주문되었고, 피디에프(PDF) 파일의 전자책 사천여권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넬슨목사의 시리즈 설교와 블로그의 링크: http://www.pmchurch.tv/sermons

PUBLISHER:
Original: “Schritte zur persönlichen Erweckung”
TOP Life Wegweiser-Verlag GmbH, Wien-Austria
Austrian Publishing House
Verlagsarchivnummer: 040 415
ISBN: 978-3-903002-14-2

Second Edition in Danish

CONCEPTION: Simon Eitzenberger, www.desim.de
PRODUCER: Konrad Print & Medien, www.konrad-medien.de
PROJECT MANAGEMENT: Christian Stroeck

발행일 2019년 2월 24일
지은이 헬뭇 하우바일(Helmut Haubeil) | **지은이 전자우편** helmut@haubeil.net
번역인 이수민(Michael S. Lee) | **번역인 전자우편** 3004messages@gmail.com
발행인 황춘광 | **편집인** 박재만 | **인쇄인** 엄길수 | **발행처** 시조사
출판등록 1955년 1월 29일, 제5-2호, 0246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홈페이지 http://www.sijosa.com | **전자우편** bookeditor@sijosa.com
대표전화 (02) 3299-5300

CONTACT and ORDER in FOREIGN LANGUAGES:
© Helmut Haubeil, Rosenheimer Str. 49
D-83043 Gad Aibling / Oberbayern - Germany
E-mail: helmut@haubeil.net
Phone: +49 (0)8061 4900 712
Languages: German & English

TRANSLATIONS - The original is in German
European: *Bulgarian, Croatian, Czech, Danish, Dutch, English, French, French-Canadian, Hungarian, Italian, Latvian, Norwegian, Polish, Portuguese-Brazil, Portuguese-Portugal, Romanian, Russian, Serbian, Spanish, Swedish, Ukrainian.*
African: *Amharic-Ethiopia, Kinyarwanda-Rwanda, Kirundi-Burundi, Swahili-Kenya/Tanzania, Zulu-South Africa*
Asian: *Bahasa-Indonesia, simplified and traditional Chinese, Filipino-Philippines, Hindi-India, Mizo-India, Odia-India, Telugu-India, Korean, Mongolian, Thai-Thailand, Urdu-Pakistan, Vietnamese*
In Preparation: *Farsi-Iran, Japanese, Singhalese-Sri Lanka, Tongan-Tonga Islands, Tamil-Sri Lanka*

Translations in other languages are desired. Please get in touch with Helmut Haubeil, so that can be checked in which way there is assistance possible.

WEBSITE: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and www.schritte-zur-persönlichen-erweckung.info

There are and will be all translated languages to read, print send to friends online. There is also the Continuation book, “Abide in Jesus.” The menu-points: Leader, How to generate interest?, Share it, Development (In which way the Lord developed the books), Testimonies (more than 100), Contact.

International Order Information: see page 2 for details

Unless otherwise no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Korean Revised Version(개역개정).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헬뭇 하우바일 목사는 일선 목회자요 비지네스맨이다. 선적회사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중역으로 근무하던 중 그의 나이 3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받고 목회로 나가 일선 목사로 16년 봉직했다. 그 이후 하우바일 목사는독일의 바트 아이블링에 위치한 재림교단 양로원의 원장을 역임했고, 은퇴후에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에서 선교사업을 일으키는 일에 중추적 역할을했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미션브리프(Missionbrief)" 라고 이름한 독일어 미션 뉴스레터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 이지 화잇, 교회증언 제8권, 22쪽